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0년도 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행동지침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주여 기억하소서 (시편 132:1-18)

본시는 다윗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리는 것에 관한 시입니다. 전반부(1-9절)는 다윗의 서약, 즉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오겠다는 것이고, 후반부(11-18절)는 하나님이 다윗의 서약에 응답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후반부는 전반부의 개념이 반복되면서 자기 백성이 요구하고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1. 다윗의 서원을 기억하소서

본시는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기를 간절히 원한 다윗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와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집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침상에 오르지도 아니하고 잠들지도 않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에 안치될 때까지 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역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크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태도를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해야 할 것입니다.

2. 경건한 종의 후손을 기억하소서

시인은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외면치 말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경건한 조상을 빙자하여 자기 몫을 챙기려는 악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개 되거나 파기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3. 하나님 언약의 성취

8-9절은 기도한 성도들에게 응답이 주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응답은 구한 것보다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에 의를 요구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 입힐 것을 약속하셨으며, 시인은 성도들이 즐거이 외칠 것을 구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이 즐겁게 영원히 노래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같은 성취는 현재를 넘어 미래 메시아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백성들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정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는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오직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순례자의 인생을 사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히 2:8).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여야 할 피조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곧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으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O Lord, remember me! (Psalm 132:1-18)

Psalm 132 is a song about God's ark ascending to Jerusalem during the Davidic era. The first part (vv. 1-9) is David's oath to the Lord. That is to say, he swore to bring God's ark up to Jerusalem. The latter part of it (vv. 11-18) is a record of God's response to David's oath. While the latter part repeats the concept of the first part, it shows that God keeps His covenants far more than His people expect or desire.

1. Remember David's vow!

This psalm focuses on David who earnestly wanted to bring God's ark of covenant up to Jerusalem. David had made a vow, "I will not enter my house or go to my bed. I will allow no sleep to my eyes, no slumber to my eyelids, until I find a place for the Lord, a dwelling for the Mighty One of Jacob." In other words, he did not want to enjoy any rest until the ark of God had been placed in the temple of Jerusalem. None of us have greatly desired God's glory and His work to the point that we make an oath to sacrifice ourselves as David did. However, we must have an attitude like this, longing to see God's work done well.

2. Remember the descendant of the pious servant!

The psalmist prays for the sake of the servant, David, that the Lord will not turn His face away from him. This does not mean praying a selfish prayer in order to get one's own share under the pretense of a pious ancestor. Since God's promise never changes and is never revoked, he prays according to God's promise.

3. The achievement of God's covenant

Verses 8-9 explain that a response was given to the believers who had prayed to God. This response was much greater than they had asked for. Although they had asked for the righteousness of the priest, God promised that He would clothe the priests with salvation. Moreover, although the psalmist had asked that they sing for joy, God promised that they would sing for joy forever. Achievements like these will occur in the future, at the time of the Messiah beyond our present moment.

Conclusion

Nowadays, people are looking for the government to solve their problems, but there is no government that can solve all our problems. Only Jesus Christ who is our Messiah can solve them. All of us living the life of a pilgrim must keep our eyes on Jesus Christ alone. As the Scriptures say, "And put everything under His feet" (Hebrew 2:8). We are God's creatures who must obey Jesus Christ. By looking to Christ and running towards our goal, I sincerely pray that you and I will run towards God's reward which has been called by Him from abov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TV: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BS(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2010년 전반기 장학금 수여식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우리교회 장학위원회(위원장 박두호 장로)는 지난 1월 27일(수) 오후5시 장학회를 열어 그 동안 접수된 64건의 장학금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40명의 후보를 당회에 올려 2010년 전반기 서울교회 장학생으로 선발하였다.

2010년 전반기 장학생들은 장학규정 제20조에 의거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교회생활에 열심인 학생들로 브리스길라 장학생(신학생) 3명, 송암장학생(찬양대 솔리스트) 10명, 일반 장학생(대학생) 14명, 디아스포라부 6명, 교역자·선교사 자녀 3명, 고등학생 1명, 호산나전문대학생 3명 등으로 총 4천3백8십 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2010년 전반기 장학생들은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열리는 장학금 수여식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학생들이 서울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에 충성하도록 기도한다.

2010년 전반기 장학생은 다음과 같다.

1. 브리스길라 장학생-3명 : 김종일 노재균 최오섭
2. 송암 장학생-10명 : 노미소 박주리 김정은 권오영 박소정 강윤희 최예은 이실비아 이수연 박승기
3. 일반 장학생
 - <대학생>-14명 : 손형린 김진아 이유나 백성훈 박선혜 홍하연 신가현 은예솔 차신영 양현진 한동현 김필구 이민주 천예은 <디아스포라부>-6명
 - 김철훈 김가영 박성호 강원철 양진혁 최명진 <교역자·선교사 자녀>-3명 : 임지선 이혜나 이평화 <고등학생>-1명 : 나인영 <호산나전문대학>-3명
 - 이사장 장학금 : 조민지
 - 학장 장학금 : 진훈
 - 부학장 장학금 : 김대일

이종운 목사 러시아 노브고로드 장로 교회 창립예배 참석

러시아 김영호 선교사가 개척 설립한 노브고로드 장로교회 창립 예배와 첫 번 세례식을 2월14일 주일에 갖게 된다. 이종운 목사의 12명의 선교위원들이 현지교회 창립을 감사하며 방문케 된다. 이종운 목사는 창립 예배 설교와 세례식을 집례하는 것 외에 러시아 목회자들에게 특강, 상트 페테르부르크 지역 선교사들 대 상으로 특강을 하게 된다. 상트 페테르부르크 장로교 신학교와 미르 신 학교를 방문하고 러시아 선교 비전을 나눈다.

서울교회 홈페이지 1월 접속통계 하루평균 방문자수 5,955명 돌파!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서울교회 홈페이지가 1월 일평균 방문자수 5,955명을 기록했다. 외국에서의 방문도 꾸준히 증가하여 1월 한달 동안 약 90개 국가에서 서울교회 홈페이지를 접속하였다.

총 히트(Hit)수	3,511,881
총 페이지뷰	449,011
총 접속자수	184,605명
일일 평균 방문자수	5,955명
전월 대비 방문자수	11% 증가(▲)

2010년 상반기 전도 양육·훈련 대학

서울교회 전도학교 37기를 비롯한 전도-양육 훈련 과정이 3월 열린프로그램과 더불어 개강된다. 삶 속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훈련받기 원하는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의 소그룹을 세우고자 하는 다락방의 참여를 기다린다.

- 전도학교 37기, 3월 7일~5월23일, 주일 오후2시~3시 30분
- 전도폭발 Classic, 3월 9일~5월25일, 화 오전 11시~13시 30분
- 행복한 소그룹 학교, 3월 12일~5월 28일, 목 오전 10시 30

분~12시 30분
· 전도폭발 Xee, 3월 13일~5월 29일, 토 오후 3시~4시 30분
* 강사 : 전도·양육·훈련 담당 장석남 목사(010-7273-6352)
* 행복한소그룹학교 사전 접수 : 훈련의 강도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사전접수 후 다락방장 면담을 거쳐 참여 다락방이 확정됨. 접수기한: 2월 21일까지.
* 전도폭발훈련은 접수 마감되었다.

농어촌100교회 결연 현황

다음주 계속

번호	교회명	교역자	지원자명단
1	금곡교회	조정원 전도사	홍순복 우승희 이강진 이신영 임흥수 김상임 조급실 탁경준 전정숙
2	두산교회	박미예 전도사	황경신 박진희4 양춘경 이인숙 김철진 노의정
3	광은교회	민민기 목사	김경태 김민태 김철호 안미경 홍성모 노은아 임미경 김세웅 김윤 박지운
4	주영교회	조준래 목사	박금희 방계은
5	인흥교회	김성은 목사	김원중 이갑연 김정에 백훈 김명심 이성우 권장철 유종숙
6	방아제일교회	최근상 목사	최현철 이종욱 이재경 이훈
7	감은교회	고창현 전도사	김광민 박민숙 권혁달 임광우 최미희 박명철 이소명
8	율목교회	우성화 전도사	김만집 이영자 최공천 이정희 류충기
9	부남명성교회	신덕만 목사	김복녀 박기남 강영순1 박정수 김경옥 노송성 이영옥 양지훈 최성희
10	팔성교회	박노갑 목사	유을상 윤숙희 정동화 김복순 이영기 한상준 임명숙 이관규 이순영 김준목 이남성 최영란김재근 안본선
11	송일교회	정병욱 목사	육순자 박종권 김희경 박정선 안홍희 전화진



김명심 권사(3교구)

전라남도 진도에 있는 죽림교회는 내 어린 시절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목사가님 생활비 위협을 받으시면서도, 농촌 교회를 사랑하고 어린이 교회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매주 월요일이면 한번이라도 성전을 거쳐간 성도들의 이름을 노트에 적어 그 이름을 불러가며 무릎 꿇고 몇 시간씩 기도하시던 모습이 선합니다.

농촌 교회는 한 사람을 어렵게 전도해서 양육하여 세례를 주어 일꾼이 되려고 하면 이내 도시로 떠나버리곤 하

는데 그래도 목사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농촌교회는 못자리 교회야" 라고 감사하셨습니다.

죽림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신후 교회의 사정은 더 악화 되어 성도는 몇명이 안되고 교역자님은 오셨다가 더 나은곳으로 옮기시거나 이것저것 묻기만 하며 오지를 알아 성도들끼리 예배를 드리며 지낸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서울교회에서 어려운 농어촌 교회를 위해 100교회 지원을 발표 하셨습니다. 당시 초등부 교사를 하던 저는 몇몇 교사들과 함께 하여(그 당시는 후 원교회를 지원할 수 있었음) 여러 해 헌

금을 하였는데 죽림교회는 그 헌금을 모아 중고 15인승 차를 매입하여 인근 마을을 운행하니 성도가 많아졌고 전도 사님도 지금까지 사역을 하신답니다.

그리고 서울교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죽림교회도 실천하자 하시며 3년째 어려운 교회를 돕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이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농어촌 교회 후원금은 어려운 농촌교회를 살리고 저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도 생활비를 절약하여 농어촌 교회 후원만큼은 꼭 하려고 합니다.

오직 사랑과 감사로.

민약한자구제 - 아이티 지진 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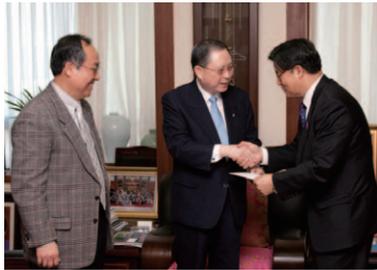
설교사역 도고교육을 시작하며

신음하는 아이티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교회는 지난 4일(수), 아이티 구호 목적의 구제현금 3,500만 원을 총회 사회봉사부에 전달했다.

이 날 이 목사님의 목양실에서 있었던 전달식은 서문석 장로(구제위원장)가 배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CBS와 함께 찾은 총회 사회봉사부 총무 이승열 목사는 서울교회에 감사를 표하고 그간 전국 교회가 열정을 가지고 모금한 구호금의 사용처를 이 목사님께 보고했다.



총회는 아이티 지진 사태 직후 그곳의 상황을 감지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 임원회를 통해 전국교회 모금을 결정했고, 모금액은 일주일만에 9억원 가량 답지했다고 한다.

아이티에는 한국 교회의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지 않아 우리나라 총회 교단과 선교 협정을 맺고 있는 도미니카 복음 교단이 아이티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총회는 그간 도미니카 복음 교단과 협력하여 3차에 걸쳐 식량, 식수, 의약품등을 지원해 왔다고 한다.

현재 아이티 거리에는 아직도 수습되지 않은 시신

들이 방치되어 있으며 공터마다 수 백개의 텐트촌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다고 한다.

이에 이 목사님은 아이티 구호에 각 교단이 따로 활동할 것이 아니라 NCC나 한기총등이 힘을 합해 한국의 모든 교단이 라운드 테이블을 결성해서 한국교회가 함께 아이티 구호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며 “기독교인들의 사랑은 세상이 흔히 말하는 박애주의나 사회동포주의와는 다른 것이다.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구호활동 역시 복음과 연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회적인 방법이 아닌 아이티의 대표 복음 교단을 직접 접촉하여 그 곳과 협력하여 난민촌을 건설하는 등 구호 프로그램을 잘 디자인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워 구호활동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했다.

신음하는 아이티가 하루 속히 회복하여 이제에는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건설하는 민족이 되기를 기도한다.

허숙 권사(편집부)

도고는 우리의 사명

임훈규 장로(4교구)



‘도고’에 대하여 살펴보려면 무엇보다도 도고란 무엇인지 그 점부터 먼저 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딤후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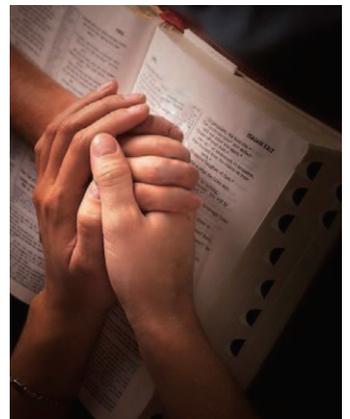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를 섬기려는 사람에게 이렇게-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권하노니’라고 한 것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권면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중에 도고라는 단어는 중보기도라고도 하지만 도고라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한자로는 기도할 ‘禱’ 고할 ‘告’, 영어로는 인터세션 프레이어(intercession prayer)라고 합니다. 중보라는 말은 실은 서로 대립되어 있는 양자 사이에서 화해와 일체를 도모하는 일인데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에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도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고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우리의 사명이요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2010년에도 서울교회의 선두에 세우신 이종윤 위임목사님 설교 사역을 위한 도고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도고의 참뜻과 행동강령을 모두가 감사와 기쁨으로 동참하여 열매 맺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설교사역 도고 교육은 2월7일 주일에 시작하여 6주동안 계속됩니다.



금요심야기도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면



최규초 집사(금요심야기도회 부장)

우리교회 심야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시작합니다. 금년 새해부터는 찬양을 더 뜨겁게 하기위해 청년부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력 교구는 정성으로 준비하여 특별찬양을 드리고 합심기도회 시간에는 각 교구별 지도 목사님에게 원하는 사람마다 특별기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는 이 목사님을 위하여, 또 교회 행사 및 각 부서와 선교사님 위한 도고와 자신과 가정과 직장을 위하여,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회 시간이 끝나면 102호에서 환우를 위한 특별기도회가 있는데 위임 목사님과 전 교역자님이 참석하여 뜨겁게 기도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고자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마 7:7-8)고 약속 하셨으니 은혜가 넘치는 찬양 및 기도회에 많이 참여 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적 야성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므로 우리의 영성도 밝아지며, 기도하므로 자신을 세우고 지키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 금요 심야기도회에 참석하여 기쁨을 누리며 응답받는 성숙한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멘관현악단

나팔과 수금으로 찬양하며



정인주 집사(아멘관현악단 부장)

할렐루야

2010년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관현악단의 시작은 미약하고 많이 부족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20명의 대원으로 안정적인 챔버 오케스트라의 소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상의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임범창 집사님의 헌신적인 집중지도와 주중연습으로 헨델의 메시아를 감동의 선율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렸으며 주일 3부 예배 헌금송과 교회의 중요행사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서울교회의 규모를 갖춘 오케스트라로 태어나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으니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605호 좁은 공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최상의 찬양을 준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참신하고 헌신적인 신앙인으로서 악기를 찬양 할 수 있는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악기(바이올린, 비올라, 콘트라베이스) 대원수가 부족하며 관악기(오보에, 파곳, 프렌치, 호른, 트럼펫, 트롬본, 튜바, 타악기)

체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서울교회의 재능과 열정을 가진 성도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시편150:3)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멘관현악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멘관현악단이 되길 소원합니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성악가 배용남 교수의 찬양으로 드립니다.

배용남교수는 연세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국립음악원(성악과)과 비엔나 시립음악원(오페라과)을 졸업하였다. 현재 강남대 겸임교수 및 연세대, 카톨릭대, 백석대에서 강의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오늘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정성실)" 외 2곡을 양경실 선생(임마누엘찬양대 피아니스트)의 반주로 찬양드립니다.

비전2020운동 후원자

(지난 주에 이어)

고석규(한치중) 김용환 김은애 김은희 김주현 김진달 남현주 박하나 배재송(임분도) 송재현(선순례) 이경구 이관모 이기태(유봉현) 이남복 이복규(한명순) 이삭선교회 이영조(이영자) 이훈 조봉환 최양진(강윤숙) 최형열(김찬진) 표현희 홍성호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 현황

(지난 주에 이어)

장해운 전광영 전수자 정기자 정길영 정동학 정수진 정윤재 정지에 제1권사회 제2권사회 제2권사회 제2세대반회 주현석 주화인 진원식 청년1부 최광성 최규호 최미아 최종희 최항봉 최형열 최홍열 탁경준 하영수 하인선 한나전도회 한정운 허경화 홍석현 홍성주 홍순복 황병석 황선욱

천국시만양성 - 신앙강좌1부

귀한 진리를 배우며



김은태 집사(신앙강좌1부 부장)

신앙강좌1부는 교회 맨 위층 904호에서 12시 40분부터 1시 20분까지 진행됩니다. 김영한 목사님의 준비된 주옥같은 강의를 30대 후

반에서 70대까지의 넓은 연령대의 성도들이 조용히 듣고 적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들을수록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과 성경의 놀라운 권위와 내용에 감탄하며 머리를 숙입니다. 자기의 신앙과 하나님 지식을 더 체계적으로 형성하는 데는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머리에 속 들어오게 친절하게 설명하시는 목사님 강의를 진지하게 듣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잡신이나 우상과 얼마나 다른지 평소 알던 것도 강좌를 통해서 더 체계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야말로 넓은 교실은 조용하면서도 귀한 진리를 깨달을 때 받은 감동이 온 교실을 가득 채우니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전반기 강좌는 신론으로 하나님에 대해 6월까지 공부하며, 7월부터 2학기는 교회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1년 2학기제로 학기말마다 수료증을 발급하며 2년을 마치면 평신도 신학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새가족부 수료 후 다른 곳에서 계속 성경공부를 하고 싶은 성도들은 이 강좌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8일(월) 한장총 장로교 신학교 인준위원회, 북한구원 운동총회를 각각 소집한다. 10일(수) 전군군목수련회 특강, 11일(목) 호산나대학 졸업감사예배설교를 한다. 12일(금) 한장총 정기임원회를 소집한다.

■ 특남: 이성규 집사 이은실 집사(5-12)

■ 개업: 고석태 집사 장효정 집사(5-11) 솔로몬부동산 남성역 4번 출구, 3477-4989

■ 주간식당 봉사: 엘리야선교회(2.7) 모세 선교회(2.14)

■ 금주의 식사: 윤은식 집사 함은희 권사 가정/교회제공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 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 일 오전 11시 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8시 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2.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롭게 준비되고 진행되도록
3. 아이티 지진 참사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4. 러시아 노보고로드 장로교회 선교팀 위하여
5. 북한의 군사적 도발 중단되고 북습화된 통일조국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교회오시는 길

